

# Casa Ermelinda Freitas, 세뚜발 와인, 마침내 한국 시장에 진입하다

Korea Wine Challenge에 해마다 와인을 보내고 있는 포르투갈의 와인 생산자 'Casa Ermelinda Freitas'의 수상 와인이 마침내 한국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간 <Wine Review>는 이 이벤트의 주체로서 컴퍼티션을 끝내고 나면 질 좋은 미수입 와인을 널리 알려 수입사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포르투갈의 Peninsula de Setúbal 포도밭 전경



## 한국 시장에 선보일 와인들

지난해, 그리고 2018년의 KWC에서 화려한 골드 메달을 차지한 다음 와인들을 들여오기 위해 이미 발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면 (주)인터볼고루에다는 이웃 나라인 포르투갈의 명주까지 들여와 금상첨화의 와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게 된다.

- ❶ Casa Ermelinda Freitas Alicante Bouschet Reserva
- ❷ Casa Ermelinda Freitas Touriga Nacional Reserva
- ❸ Casa Ermelinda Freitas Moscatel de Setúbal NV

## Casa Ermelinda Freitas

약 5년 전부터 이 와이너리는 KWC에 정말 훌륭한 와인을 보내오고 있었다. 이 가운데 Alicante Bouschet의 포도종으로 빚은 빈티지 2016년 리제르바 와인이 여느 와인보다 훌륭했다. 필자가 특별히 좋은 와인을 만났을 때 글을 쓰는 '기분 좋은 와인' 코너에 이 와인을 올린 일이 있었다. Wine Review 2019년 7월호에 실렸던 글을 참고로 적는다.

“지난해 이 와인을 마셔본 후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이 와인이 나는 포르투갈의 세뚜발(Setúbal)이 정말 훌륭한 테이블 와인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알리캄트 부셰 포도종이 그만큼 훌륭하구나 하고 놀라움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세뚜발은 지난날 이 나라가 자랑하는 포트와이드 와인을 내는 곳으로 이름나 있었다. 흔히들 마데이라와 쌍벽을 이루는 산지로 유명했다. 그런 곳이 이렇게 멋진 테이블 와인을 내는 산지로 둔갑한 것이다. 와인은 유순하고 흐릿한 감흥을 가져다준다. 우리나라의 술한 와인 수입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와인을 마셔보고 필자의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음을 입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거의 1년간의 산고 끝에 드디어 이 와인이 한국 시장에 상륙해 우리나라 와인 마니아의 입맛을 즐겁게 해줄 것 같다. 한 가지 첨가할 일은 2020년 6월에 있었던 Korea Wine Challenge에서도 이 와이너리는 여느 생산자와 달리 모두 4종의 와인이 Gold Medal을 거머쥐기도 했다. 재작년에 이어 새로운 쾌거이기도 하다. 어느 면에서는 부동의 명주를 내는 와이너리로 자리 잡은 셈이다.

## (주)인터볼고루에다

이번 Casa Ermelinda의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 유통사는 바로 (주)인터볼고루에다이다. 많은 와인 소비자가 이 수입사에 대해 낯선 이름으로 여길 줄 모르나 한때는 와인리뷰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였던 수입사이기도 하다. 2002년에 설립된 (주)인터볼고루에다(대표이사 박현수)는 주로 스페인 와인을 취급하는 수입사이다. 모기업은 한국인으로서 스페인 근해 어장인 라스 팔마스에 원양 기지를 두고 사업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다. 이런 모기업의 영향으로 서울과 대구에 본·지점을 두고서 질 좋은 와인을 들여오고 있다.

지난날 2012년 6월, 여수에서 개최된 바 있는 여수 해양박람회 때 당시 Expo 위원장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이 수입사에서 들여온 'Terras Guada' 와인이 주빈을 위한 만찬장 공식 와인으로 쓰인 일이 있었다. 당시 필자가 이 와인에 대해 쓴 글 한 조각을 참고로 든다.

“한반도의 남쪽, 아름다운 여수 신항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세레모니를 위한 만찬이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드넓은 만찬장에서 열렸다. 주빈은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빈센트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 모두가 약간 들뜬 분위기에서 수정 같은 화이트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다. 바로 스페인 서북부에 자리한 화이트 와인의 명주가 나는 리아스 바이사스에서 온 알바리(Albali, 포도종)의 화이트였다. 스페인 출신인 주빈은 자국의 와인으로 축배를 들게 되고 리아스 바이사스의 훌륭한 화이트에 깊은 감명을 보였다”